

김창환 박사, 풀러신학교 석좌교수 취임

김창환 박사가 지난 1일, 풀러신학교 선교 및 신학대학원 로버트 와일이 공공신학 석좌교수에 취임했다.

김 박사는 리처드 마오 전 풀러 총장이 로버트 와일이 공공신학 석좌에서 은퇴함에 따라 이번에 취임하게 됐다.

김 박사는 로버트 와일이 공공신학 석좌교수로서, 신학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교회가 사회 각 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연구할 예정인데, 정치적 양극화를 비롯해 경제, 사회, 종교적 양극화 등에 대해 신학이 '어떻게 순방향으로 양극화를 극복하고,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창환 박사는 "석좌교수로 취임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겸손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미국 사회와 미국교회, 또한 한인 교회와 한국교회가 가진 어려움을 공감하며, 교회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 예배만 드리는 종교적인 단계로 머물 것이 아니라, 어



풀러신학교 석좌교수 취임식에서 강의하는 김창환 박사 ©기독일보

떻게 하면 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공의 선을 이룰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박사 과정 학생들과 함께 신학의 복음적 사회참여와 공공성에 대해 토의하고 연구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다.

김 박사는 로버트 와일이 공공신학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그동안 맡아오던 풀러신

학교코리안센터 원장 직함도 계속 이어가게 된다.

이날 취임식에서 "양극화 : 신학적 도전"이란 주제로 강의한 김창환 박사는 정치적 양극화가 가져오는 부정적 특징과 순기능적 역할을 소개하면서, 신학에서 찾을 수 있는 건설적 양극화에 대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본인이 속해있는 정당은 무조건 지

지고 다른 정당의 정책은 무조건 반대한다거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되고 어떻게든 고쳐져야 한다는 이분법적 생각은 매우 파괴적이고 위협하다"며 "기독교 안에도 성스러움과 세속적, 교회와 세상 등과 같은 양극화 사고는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신학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한데, 완전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신성과 함께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화합의 길을 여신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중보자로서의 성령의 역할도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교회가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양극화 된 세상에서 다리가 되어 공공의 선을 이룰 수 있는 화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 예배는 이학준 박사(풀러 기독교 윤리학)의 개회 기도에도 이어 풀러 신학교 총장 마크 레버튼 박사가 환영사를 전했다. 로버트 쥘슨 박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헬렌 린 실장(코리안센터 디렉터)과 달란 과거 학생의 성경봉독에 이어 알렉시스 아버네시 교수 권면했다. 취임식은 마크 레버튼 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새 보수 감리교단 “노스캐롤라이나 교회 3분의 1, UMC 떠날 것”

GMC 지도부 “180개 교회 탈퇴 투표...내년 80곳 예상”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에서 분립한 새 교단이 “노스캐롤라이나 연회 소속 교회 3곳 중 1곳이 UMC를 떠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세계 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 GMC) 노스캐롤라이나연회 창립위원인 제리 루이스 목사는 지난주 캐롤라이나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UMC 산하) 교회 226곳이 노스캐롤라이나 연회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잭슨빌에 있는 감리교 회중교회 행정관인 그는 “180개 교회가 올해 이미 탈퇴에 투표

했으며, 약 80개 교회가 내년에 UMC를 떠날 수 있다고 GMC 측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UMC 노스캐롤라이나연회에는 총 779개 교회가 가입돼 있으며, 260개가 탈퇴할 경우 지역 교회의 3분의 1을 잃게 된다.

루이스 목사는 “우리는 이른바 ‘첫 번째 물결(first wave)’이라고 부르는, 엄청난 수에 도달한 데 대해 기쁘다”라며 “첫 단계에 180곳을 얻게 된다는 것은 단시일 내에 이뤄지는 가슴 벅찬 일”이라고 말했다.

루이스에 따르면, 탈퇴에 투표한 180개 UMC 교회 중 150개 이상이 GMC에 가입하며, 나머지는 GMC나 타 교단, 혹은 비교교 소속으로 남을 전망이다.

UMC 연례회의는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노스캐롤라이나연회 두 곳이 속해 있다. 서

부 노스캐롤라이나연회 커뮤니케이션 이사인 에이미 예거는 CP와의 인터뷰에서 “990개 교회 중 41개가 이미 탈퇴했다”면서 “다른 7개 교회도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예거는 “7개 교회가 탈퇴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교회 회의를 가졌다. 그들은 2023년 연차 총회에서 승인을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스캐롤라이나연회 커뮤니케이션 이사인 데릭 리크는 CP에 일부 지역 교회의 탈퇴와 관련해 “아직 투표 절차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초에 784개의 교회가 있었다. 2곳은 다른 교회와 합병되었으며, 3곳은 폐쇄됐다. 오늘 현재 779개의 교회가 있다”라며 “11월 19일 연례 특별 세션 전에 공식 명단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총대의원들과 감독들이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2019년 총회에서 동성애에 관한 교회 정책에 대한 투표를 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다. ©UMC 뉴스 제공

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착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배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 대면·전화상담 예약 |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장재효 목사 초청 영성집회

주제: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께 쓰임받자

집회 일정

- 11월 6일 주일 오전 11시 주백성교회 김성규 목사 818-633-1241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 11월 9일 수요일 오후 7시 남가주 은혜선교교회 김창곤 목사 310-713-3006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9시 남가주 새생명교회 박형준 목사 714-323-1194
261 E Imperial Hwy #550 Fullerton, CA 92835
- 11월 13일 주일 오전 11시 놀웁장로교회 차권희 목사 213-598-6878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약력소개

-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이수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신학연구 과정 이수
-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과정 이수
- Faith Evangelical Seminary 명예박사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 성령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역임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역임
- 전국기도원 총 연합회 총재
- 성은동산(기도원, 경로원, 수양관) 원장
-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주 관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International Holy Grace Gospel Mission)

기독일보 문의전화 : (213)739-0403, (213)718-1512

굿네이버스 USA 희망편지 쓰기 대회 개최

글로벌아동권리전문 NGO 굿네이버스 USA(회장: 이일하, 사무총장: 최민호)는 미주 한국학교총연합회(이사장: 최정인, 회장: 용승)와 함께 희망편지 쓰기대회를 개최한다.

2009년부터 한국에서 시작된 '세계시민교육 편지쓰기대회'는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지구촌 이웃이 겪는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며, 나눔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대한민국 대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제13회 세계시민교육 편지쓰기대회'에는 한국에서 4,762개교, 210만여 명의 아동이 참여해 잠비아에 살고 있는 '맥스웰'에게 희망편지를 전했다.

이번 대회의 주인공은 아프리카 말라위에 사는 10살 소년 '라맥'이다. 3년전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400km 떨어진 농장으로 일을 떠난 후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지만, 전화가 없어 일 년에 두 번 옆 마을에 가서 통화하는 것이 전부다.

이번 대회는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에 등록된 42개 학교와 함께 진행된다. 수상자는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와 굿네이버스 미주법인이 희망편지쓰기대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국학교총연합회 용승 회장, 굿네이버스 USA 최민호 사무총장, 한국학교총연합회 최정인 이사장, 이혜진 부회장

11월말 굿네이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12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이사장상 2명

에게 메달과 300달러의 상금, 최우수상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회장상 2명에게 메달과 200달러의 상금, 우수상 굿네이버스 미주법인 사무총장상 4명에게 각 100달러의 상금

이 수여 될 예정이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낯선 길을 떠나는 라맥의 여정이 담긴 영상은 대회 홈페이지 <https://www.kr.goodneighbors.us/hopeletter> 에서 시청할 수 있다.

굿네이버스 USA 김재학 부부장은 "지난 13년 동안 한국에서 2,270만여 명의 아동이 참여한 대한민국 대표 나눔인성교육 프로그램인 희망편지쓰기 대회를 미국에서도 개최하게 됐다"며 "특히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와 함께 하여 학생들에게 한글교육뿐 아니라 나눔교육까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최정인 이사장은 "연합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뜻 깊은 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NGO 인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희망편지쓰기대회를 하게 됐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한국학교 학생들과 가족들이 뜻 깊은 일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877-499-9898

김동욱 기자

미 전역 UMC 한인교회, 예배와 찬양 통해 화합

2022 전국평신도연합회 찬양예배 개최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회장 이철구 목사, 이하 한교총)와 KUMC 전국평신도연합회 동북부연합회(회장 최관호 장로)는 11월 6일(주일) 오후 5시, 뉴저지 베다니교회에서 미 전역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들이 함께 모이는 2022 전평연 찬양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이번 찬양예배는 남부뉴저지KUMC(박태열목사), 뉴욕만백성교회(이종범목사), 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목사), 베다니교회(백승민목사),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목사), 후러시제일교회(김정호목사) 등 동북부 지역 6개 교회 찬양대가 참가할 예정이며, 현장 참여와 함께 미 전역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교총 회장 이철구 목사는 "연합감리교회의 분열과 한인교회의 생존과 미래를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 전국의 KUMC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이와 같은 시기에 동북부평신도연합회를 중심으로 찬양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찬양예배에 대한 문의는 전평연 동북부회장 최관호 장로(전화: 201-693-0067)에게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임마누엘선교교회 창립 12주년 및 제13차 장학금 수여식

43명에 총 2만4천800달러 전달

임마누엘선교교회(담임 이진경 목사)는 지난 31일 창립 12주년 축하예배와 제13차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임마누엘 장학회는 베트남신학교 외 베네수엘라대학교, 에반젤리아대학교, 미주장신대, 미성대, 뉴욕신학대, 멕시코신학교와 선교단체 등 43명에 총 2만4천800달러를 전달했다.

1부 창립 축하예배는 조성현 선교사의 인도로 비비아 박 전도사(미성대학교)의 기도 에 이어 조성호 목사(미성대학교 부총장)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3: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성호 목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한 노예와 같은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며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삶을 본받아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자"고 전했다.

2부 장학금 수여식은 조성현 선교사의 인도로 윤혜숙 권사(임마누엘 장학회 이사)



임마누엘선교교회 창립 12주년 및 임마누엘 장학회 제13차 장학금 수여식 장학생 기념촬영 © 기독교일보

가 경과보고를 했으며, 김문자 목사(임마누엘 장학회 회장)가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어 장태인 전도사(에반젤리아대학교)가 장학생 대표로 장학생 선서를 했다.

한편 임마누엘 장학회는 2010년 9월 설립돼 미국과 멕시코, 베트남 등 14개 신학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선교사들에게 지금까지 총 20만 2천 100달러를 전달했다.임마누

엘 장학회는 "나누는 기쁨, 돌보는 보람, 누리는 축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장학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강원식 총재(신신그룹회장), 장용진 수석고문(Kiss 사장), 장성용 상임고문(Diva 사장), 김문자 회장, 강영숙 부회장, 데이빗 김 이사장, 조성현 본부장, 조현정 총무, 이진경 목사 등이 임원으로 있다.

김동욱 기자

[1면 "김창환 박사, 풀러신학교..." 이어]

한편 김창환 박사 서울에서 태어나 한양대학교에서 전자커뮤니케이션공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프로그래머 및 시스템 분석가로 일하던 중, 한국의향선교회와 한국 월드컨선선교회에서 사역한 바 있다. 이후 한국의향선교회 산하 타문화권선교사훈련원 원장, 한국 World Concern의 본부 책

임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에 소속되어서 선교 사역을 지속했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MDiv)와 신학석사(ThM),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철학박사(Ph.D)를 마쳤다. 이후 영국의 요크 세인트존 대학교 인문, 종교, 철학 대학에서 신학과 공공 영역의 석좌교수로 12년 간 재직했으며, 동 대학의 대학연구총괄 교수 및 부설 종교와 사회연구소(Center for Reli-

gion in Society)의 원장을 역임했다. 2017년 7월부터 풀러신학교 코리아센터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A History of Korean Christianity (한국 기독교 역사)》, 《Theology in the Public Sphere: Public Theology as a Catalyst for Open Debate (공공 영역의 신학: 열린 대화의 촉매로서 공공 신학)》 등이 있다.

한샘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저희 한샘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임직식을 갖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자

장로 : 박제근
권사 : 박메리

일시 : 2022년 11월 6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한샘교회 예배당
3669 W. 6th St. LA, CA, 90020
(6th + Kingsley, LA한인타운 형제갈비 건너편)

한샘교회 | 원로목사 : 최진현 담임목사 : 이순환

“남가주 연세인들 모여라!” 2022 연세 추수감사예배

연세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고혜흥 회장)와 남가주 연세동문 목회자회(회장 이영선 목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연세추수감사예배가 오는 11월 6일(주일) 오후 4시, 부에나파크교회(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90621)에서 진행된다.

이날 감사예배는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원

로 목사가 설교하고 특별히 남가주연세과이여, 연목회 사모합창단, 연세대 남가주 총동문회, 연목회 회원 가정, 연음회(연세대학교 남가주 음대 동문회)가 풍성한 감사찬양을 연주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참석자 전원에게 저녁 식사가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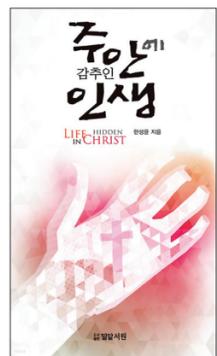
연목회 회장 이영선 목사는 “계속되는 팬

데믹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2022년 연세 추수감사예배에 남가주 연세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초대했다.

문의 : 714-486-7282

김동욱 기자

나성남포교회 한성윤 목사 신간 〈주 안에 감추인 인생〉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어느 때보다 희미해 보인다. 이는 외부와 내부 모두로부터 받는 지적

같은 질문 “오늘의 교회는 과연 건강한가”에서도 잘 나타난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구호도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조차도 너무 자주 휘둘러 무디어진 칼날이 된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우리는 복음조차도 소위 교세를 회복하고 우리가 누려왔던 교회의 권리와 위상을 다시 찾는데 앞세우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렇기에 세상은 겹겹을 깨뜨린 복음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교회는 여전히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다고 믿으며, 자랑할 통계를 가지고, 헌신된 성도들이 있다고 말할 지 모른다. 그러나 교회가 올바른 열매를 구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열매만 구하던 눈도 나무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나쁜 열매만 따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 시간이 아닐까?

“주안에 감추인 인생”의 저자인 한성윤 목사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오신 예수가 누구이시고 살아있는 성도의 신분이 어떤 것이기에 가장 약한 자와 낮은 자로 살아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우리가 잘나서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깨닫고 있으시기에 우리도 같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를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우리의 양심이 남보다 나아서, 남보다 죄를 잘 이길 수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그의 은혜로 우리가 그 자리에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한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살게 됐는지를 바르게 알게 된다면 풍량은 바닷 속에서도 잘 수 있는 그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성경이 말씀 했듯 이 책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할 것이다.

한성윤 저 | 밀알서원 | 1372쪽

CTS America 2023 목회 인사이드 “교회, 성도를 알다”

Ready for 2023
미주 목회인사이드
교회, 성도를 알다
Los Angeles
2022. 11. 8. Tue / am 10:30
남가주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CTS America와 기독교전문조사기관 지앤컴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미주한인교회 교인인식조사”에 기반을 둔 이번 컨퍼런스는 2023년 목회 전망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사회 우영화 목사 (동부시영교회)
강사 지용근 대표 (목회데이터 연구소)
논찬 송병주 목사 (선한창지기교회)
논찬 권도근 목사 (나눔목비전교회)

전 미주를 대표하는 기독교TV방송 CTS America가 오는 8일(화) 오전 10시 30분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담임 박성근 목사) “2023 목회 인사이드”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교회, 성도를 알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본 컨퍼런스는 한국의 대표적 기독교전문 리서치 기관인 지앤컴 리서치의 대표이자 목회데이터연구소 소장인 지용근 대표가 주강사로 진행된다.

본 컨퍼런스는 팬데믹 시대를 맞아 목회 환

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데이터에 근거한 성도들의 의식 변화, 최신 목회 트렌드와 사례 등을 제공하여 2023년 한인 교회 목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개최된다.

특히 CTS America가 지난 9월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하여 LA, 뉴욕, 애틀랜타 지역 한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주한인교회 성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목회 트렌드와 전략적 목회 방향을 제시 한다는 데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컨퍼런스는 LA지역 뿐만 아니라, 11월 2

일 뉴욕(뉴욕프라이미스교회), 11월 4일 애틀랜타(애틀랜타 프라이미스 교회)도 개최된다.

CTS America 감덕구 본부장은 “전 미주에 24시간 복음 방송을 송출하는 CTS America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주 한인 교회를 섬기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컨퍼런스들을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를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CTS America 홈페이지(www.ctsamerica.tv) 온라인 등록 또는 전화 700-800-0191로 신청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예장 합동 미주서부노회 제16회 정기노회 개최



예장 합동 미주서부노회 제16회 정기노회 개최

이날 노회에서는 박헌성 목사가 제107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참석 결과를 보고했으며, 김우현, 나정기, 류기종, 손윤길, 장유석, 정특군, 최종석, 최혁, 황성실, 황태학 등 10명에 대해 강도사 인허식을 가졌다.

또 이용호 목사(콜로라도 새생명교회)와 여갑빈(지저스힐링교회) 목사의 가입을 받기로 허락했다.

이날 예배는 부노회장 정중윤 목사의 인도로 고동욱 목사의 기도예 이어 진석호 목사가 ‘하나님’(요 3: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진석호 목사는 “혼탁한 시대정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문가가 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고 전했다. 성찬 후 김대영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서부노회(노회장 진석호 목사) 제16회 정기노회가 지난 26

일, 나성열린문교회(박헌성 목사)에서 열렸다.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현상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2023년 겨울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모집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로스퍼디 교수, Ph.D.
(영국스털링대학교) 교회사

멜빈 렉스 교수, Ph.D.
(폴리신학교) 조직신학

프리실라이도요 교수, D.Miss
(폴리신학교) 타문화사역

데이빗 맥킨리 교수, D.Min
(트리니티신학교) 리더십

김관호 교수, Dr. Theol.
(독일 본대학교) 조직신학

**온라인 수업 제공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

모집 학위과정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DICS 교차문화학 박사

장학금
겨울학기 전 입학자 25%, 목회자 30%, 선교사 40% 장학금 혜택

제출서류 *입학서류 양식은 한국어 프로그램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DICS(교차문화학 박사)의 경우 Writing Sample, Proposal Paper 추가

전형방법 서류심사

원서접수

겨울학기 접수기간	2022년 10월 24일(월) - 11월 30일(수)
합격자 발표	2022년 12월 8일(목)

겨울학기 일정(10주)
2023년 1월 3일(화) - 3월 10일(금)

입학문의 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626) 653 9547 EXT.112 /admin.kor@itsla.edu

총장 이승현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우수한 연방인가 기관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 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626.653.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아티스트 자넷 현, 예배 중 영감 즉석 그림으로 '깜짝 거리 전시'

서울씨티교회와 함께 서울 돌레길서 '퍼포먼스 라이브 페인팅' 작품 선보여



뜻밖의 그림들에 사람들은 저마다 발걸음을 멈춘다. ©송경호 기자

미국에서 독창적인 '프로페틱 아티스트'(Prophetic artist)이자 '퍼포먼스 라이브 페인팅'을 통해 명성을 얻고 있는 자넷 현(Janet Hyun)을 13일 서울씨티교회(담임 조희서 목사)에서 만났다. 뒤에 보이는 작품들 중 가운데 것은 그가 서울씨티교회 예배 중 받은 영감을 즉석에서 그려낸 '흠, 스윗 흠'으로,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물고기로 형상화돼 옥합에서 자그마한 집으로 쏟아지는 것을 표현했다. 그 왼쪽은 그녀의 시그니처 작품 중 하나인 '유다의 사자', 오른쪽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여인이다. ©송경호 기자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안식처로 1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서울 돌레길. 그 중에서도 중랑구 화랑대역에서 광나루역으로 이어지는 용마·아차산 코스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생태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루트다.

그 돌레길 중 중랑캠핑숲에서 망우묘지공원으로 가는 길의 시작점, 서울씨티교회가 위치한 곳에서 뜻밖의 그림들을 마주하게 된다. 저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에 담아가기 바쁜 이 그림들은, 바로 미국에서 독창적인 '프로페틱 아티스트'(Prophetic artist)이자 '퍼포먼스 라이브 페인팅'으로 유명한 자넷 현(Janet Hyun)의 작품이다.

이번 돌레길 전시는 조희서 목사가 이 뜻 깊은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갖고 추진했다.

자넷 현은 심오하면서도 모두에게 쉽게 다가가는 특별한 예술적 매력으로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현실로 끌어내,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퍼즐 같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그녀의 시그니처 작품 중 하나인 '유다의 사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자를 화려하고 강렬한 색감으로 표현해, 보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

무엇보다 그녀는 거의 모든 작품들을 개인 작업실이 아닌 대중 앞에서 그려낸다. 공연과 예배 등 그 시각 그 장소에서만 느껴지는 영감을 받아 무대 위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더하게 된다.

그 과정 속에서 각 개인과 소통하고, 저마다의 수많은 감동과 해석을 낳는다. 그녀에게

그림은 세상과 대화하는 수단이다. 그림을 통해 말하고 그림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듣는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깊은 내면의 울림을 선사하는 생명력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유명 화랑에서나 마주칠 법한 자넷 현의 작품이 서울 돌레길에 있는 것일까. 바로 서울씨티교회 조희서 목사와의 특별한 만남이 그 계기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국내 최초 '드라이브 인 워십'으로 세계적 화제가 됐던 그 교회다.

평소 복음 전파의 매개로 문화·예술의 힘에 주목하던 조 목사는 미국의 한 CCM 공연에서 실황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녀의 작품 '미라클'을 우연히 마주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하늘에서 물고기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표현한 그녀의 작품은 기존의 것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림에서 넘치는 영감에 감동한 그는 수순 문 끝에 그 작품을 서울씨티교회 예배당 한 가운데에 전시했다. 그림을 본 성도들에게도 역시 그가 느낀 것과 같은 마음의 감동이 일었다. 이후 조 목사는 자넷 현과 만나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그녀에게 귀국을 제안했고, 때마침 그 만남이 있기 직전 기도 중 한국교회를 섬기라는 소명을 받았던 그녀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사실 자넷 현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녀가 아티스트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중이었다. 학창 시절을 한국에서 보낸 그녀는 미국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미국 파사데나 Art Center College of Design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한 뒤 아티스트이자 사업가로서 명성을 쌓아갔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주일예배에서 “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설교를 듣던 중 주님의 음성이 다가왔다. “나는 네게 온전히 받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그 음성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찌르고 영혼을 후벼팠다.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녀가 다시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52일 동안 28개의 그림을 그려 대만의 미션스쿨에 보내라”는 선명한 음성으로 답하셨다. 그녀는 이전까지 대만과 전혀 관계가 없었지만, 어느 날 대만의 신학교로 파송을 준비하던 한 목회자가 학생들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 줄 기독 미술 작품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 그녀의 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그만큼 그녀는 바빴다. 또한 그녀는 세 자녀의 어머니이기도 했다. 게다가 그녀의 화법은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방식이었기에 52일간 28개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그림은 내 그림이 아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마음으로 붓을 들었고,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세 시간 만에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다.

“그때 ‘어노인팅(기름 부음)’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10년이 걸릴 것도 1년 만에, 1년이 걸릴 것도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 능력을 모두 초월하는 게 바로 ‘어노인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공과 명예를 위해 살던 그녀의 삶을 무너뜨리시고 52일간 다시 지으셨다. 이후 그녀는 신앙적이면서도 예언적 메시지를 제시하는 크리스천 프로페틱 아티스트이자 예배와 CCM 공연 등 무대 위에서 즉흥적으로 작품을 선보이는 퍼포먼스 라이브 페인팅으로 사역의 제2막을 펼쳐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콘퍼런스와 아트쇼, 워크숍 등에서 동기부여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보육원, 병원 등 자선단체들과 협력해 그림으로 치유와 희망을 전하고, 유튜브 <그림언니 인생토크>를 통해 신앙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귀국 후 그녀는 서울씨티교회 예배 중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주신 은혜를 즉석에서 표현했다. 그 작품명은 '흠, 스윗 흠'으로,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물고기로 형상화돼 옥합에서 자그마한 집으로 쏟아지는 것을 표현했다.

그녀는 앞으로 약 5년간 국내 사역을 펼칠 예정이다. 그녀는 특히 도시와 나라의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꿈과 사명을 깨우는 '비상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다. 송경호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3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 (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 (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교연 “이태원 사고 충격... 희생자·가족 위해 기도”

긴급 담화문 발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29일 밤 일어난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긴급 담화문을 30일 발표했다.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지난밤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참사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어떻게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지 참담하고 허탈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고의 희생자가 주로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란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며 “먼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고 망연자실할 유가족 여러분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길 빈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사고가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일어난 압사 사고라는 데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며 “21세기에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한교연은 “헬러윈은 많은 사람이 각양각색의 치장과 분장을 한 채 거리를 누비는 축제”라며 “특히 사고가 벌어진 이태원 지역은 평소에도 외국인과 젊은이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이런 축제는 늘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헬러윈 축제에 이미 10만여 명이 몰릴 것이 예상됐음에도 서울시와 관할구청, 또한 경찰 당국이 시민을 위해 어떤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의문”이라는 이들은 “만약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는 무사안일주의로 대비가 소홀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 요청드린다. 지금 부상자들이 인근 각 병원에 흩어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신속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며 “그리고 차체에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온 국민인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30일 새벽 실시간 현장 보도 모습. ©YTN 캡처

체계적인 국민안전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교연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이번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발표했다”며 “한국교회도 같은 마음으로 모든 협력과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회원 교단과 단체들이 오늘(30일) 주일예배에 희생자와 가족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며 “한국교회 1천만 성도 모두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2심서 인정된 김하나 목사 지위... ‘수습안 의결’ 이 결정적

[판결문 분석] 1심의 ‘부존재’ 판결, 왜 뒤집혔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 이유는 2심 법원이 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총회의 소위 ‘수습안 의결’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정모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27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는 아버지가 은퇴(2015년 12월)하고 약 2년 뒤인 2017년 11월, 이 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교단의 이른바 ‘세습방지법’을 어겼다는 비판 여론이 교단 안팎에서 거세게 일었다.

결국 교단에서 재판이 진행돼, 2018년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의 청빙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의 결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해 교단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의 반발로 재심이 결정됐고, 다시 꾸러진 총회재판국은 이듬해 청빙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얼마 뒤 열린 같은 해 정기총회에서는 ‘수습안’이 통과됐다. 수습안은 김하나 목사에 대한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실제 김 목사는 이날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했다.

◆ “수습안 의결, 당연 무효로 할 만큼 교단

헌법 등 규정 위반했다 보기 어려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문에서 우선 헌법상 종교의 자유 등에 비춰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 등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후 ‘수습안 의결’에 대해 재판부는 “총회가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세습방지법)에 관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 및 재심 판결이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달리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혼란이 가중되고 재심 판결에 대한 재재심 청구까지 제기되자, 최고 처리권자로서 교단 내에 피고 교회(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헌법 해석에 관한 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수습안 의결을 통해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 관하여 ‘전임 목사의 은퇴(2015. 12. 31.) 후 (그의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경과한 때(2021. 1. 1.)부터는 이미 은퇴한 전임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한 것은 부당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



지난 2017년 11월 있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예식에서 아버지인 김삼환 원로목사(오른쪽)가 김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하던 모습.

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총회가 이 사건 수습안 의결에서 재심 판결의 판단 대상인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의 2017년 10월 24일자 이 사건 청빙 승인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다’는 주문 부분을 수용토록 하면서, 교단 헌

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피고 교회로 하여금 전임 목사 퇴임 5년 후 새로운 청빙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다만 새로운 청빙절차에서 피고 교회가 김하나를 또 다시 청빙할 경우 노회 승인은 재심 및 재재심 포함한 소송 당사자로서 이 사건 수습안 의결을 받아들인 서울동남노회의 이 사건 청빙 승인 결의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것을 당연 무효로 할 만큼 교단 헌법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명성교회가 지난 8월 21일 공동의회를 열어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결의를 재확인하고 △김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추대하기로 한 당회 결의를 추진한 결정도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수습안 의결 이후 청빙 절차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뤄진 김하나의 피고 교회 위임목사 부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소결론에서 “결국, 김하나에게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CDTV 미주기독교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 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미주 디아스포라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연합

라이브 워십 집회

DEC 03 · 토 7PM

@남가주동신교회 본당

MARKERS WORSHIP

마커스워십

인도자 소진영

X

원하트워십

ONEHEART WORSHIP

인도자 소진영 소개

마커스워십 예배 인도자 & 싱어송라이터,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졸업, 주내침교회 찬양사

대표곡 소진영 1집 | 마커스워십 2016 ~ 2019
마커스워십 스튜디오 (2021) | Go with the Lord (2022)

주요 앨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 오직 예수뿐이네 |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 주 은혜임을 | 주는 완전합니다 등

(티켓 \$20)



티켓구매 링크



213,347,5080 | myoneheartministry@gmail.com
oneheart-usa.com

동역 | GBC, 기독교일보, 남가주동신교회, ANC 은누리교회, 리노한인장로교회, 산호세세누리교회

*후원수익금은 미주 디아스포라 예배 인도자들을 세우는데 사용됩니다.

미 장로교, 교세 통계에 “내년부터 제3의 성 항목 추가”

동성에 포용 확대로 10년새 1400개 교회 ‘급감’

미국 최대 장로교단인 미국장로교(PCUSA)가 내년부터 연례 보고서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별’ 범주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5일 미국장로교 총회 사무국은 회원 교인 및 교회 통계에 대한 보고 방식을 수정 중이며, 내년부터 성별에 “논바이너리/젠더퀴어(nonbinary/genderqueer)” 항목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교단 기능 및 통계 운영자인 크리스 발레리우스는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동일한 항목을 가질 것이며, 더이상 그들(제3의 성별자)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하지 않겠다. 정보는 널리 정의를 삭제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발레리우스는 “예컨대, 우리는 항상 교회

에 얼마나 많은 여성 교인이 있는지를 물어왔다. 지금부터 우리는 남성, 여성 및 논바이너리/젠더퀴어 교인이 몇 명인지를 물을 것”이라며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채워질지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총회 사무국은 통계 보고에 ‘민족 및 인종 항목에 대한 정의’를 제거하고, ‘기독교 교육 부문’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또 통계에서 ‘재정 항목’을 변경하고, ‘17세 또는 18세 교인 수에 연령 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타 기독교 교단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장로교는 회원 교인 및 교회 수 모두에서 상당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 미국장로교는 2021년에 100개 이상의 회원 교회 및 5만 1천 명의 교인을 잃었으며, 4개의 지역 기구 또는 노회가 탈퇴했다고 보고했다.

최근 통계 기준 미국장로교는 약 110만 명의 활동 교인과 8813개의 회원 교회, 166개의 노회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12년 활동 교인 184만 명, 회원 교회 1만 262개에서 10년 새 70만 명의 교인과 1400개 이상의 교회



켄터키주 루이스빌에 위치한 PCUSA 교단본부 ©PCUSA

가 이탈했음을 의미한다.

CP는 교세 감소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미국장로교가 수년간 동성애에 대한 포용을 확대해 수백 개의 회원 교회들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장로교 내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반대해 온 진영은 교단을 떠나, 2012년 새 보수 교단인 ‘복음연합장로교(The Evangelical Cov-

enant Order of Presbyterians,ECO)를 출범했다. 이는 2008년 제218차 미국장로교 연차 총회가 ‘독신이 아닌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를 통과시킨 지 3년 뒤에 발생한 일이다.

복음연합장로교는 2016년 기준 300개의 회원 교회가 가입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미국장로교에서 탈퇴한 교회들로 이뤄져 있다.

김유진 기자

전 세계 성구 월간 검색량, ‘요한복음 3장 16절’ 210만 건 ‘1위’

월드비전의 디지털 설문조사 결과,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이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ahrefs.com의 ‘키워드 탐색 기능’(Keyword Explorer Tool) 데이터를 검토해 172개국의 평균 월별 구글 검색량을 조사했다.

또 인기 있는 성경 읽기 웹사이트인 ‘바이블 게이트웨이’(Bible Gateway)에서 가장 많이 읽은 100개의 성경구절에 대한 국가별 구글 검색량을 살폈다.

그 결과, 요한복음 3장 16절이 210만 건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월간 검색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과 빌립보서 4장 13절이 8만 2천 건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7만 3천 건이었다.

국가별로 분류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필리핀, 소말리아,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성경구절이었다.

남미 국가의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를 가장 많이 검색했다.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3개의 성경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요한복음 14장 6절로 월간 검색 횟수가 각각 6,500회, 2,000회, 1,900회였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소셜미디어에서도 널리 공유되고 있었다. 해시태그 #John316 은 250,000개 이상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등장했으며, 틱톡에서 5,590만 번 이상 조회됐다.

월드비전은 “이 구절은 오랫동안 기독교 지도자들과 언론 매체를 통해 사용되어 왔기에 그 구절이 모든 성경구절 중 가장 많이 검색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이 구절은 웹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구절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한 업데이트를 공유하면서 소셜 미디어에서도 많이 인용된다.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기독교 신앙을 강력하게 대표한다고 느낄 정도로 자주 공유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 Top 10 (괄호는 월간 검색 횟수)

1. 요한복음 3:16 (월간 2,100,000번 검색)
2. 예레미야 29:11 및 빌립보서 4:13 (82,000번)
3. 요한복음 10:10 (73,000번)
4. 잠언 3:5 (58,000번)
5. 마태복음 28:19 (50,000번)
6. 빌립보서 4:8 (42,000번)
7. 빌립보서 4:6 (37,000번)
8. 로마서 8:28 및 야고보서 1:3 (33,000번)
9. 잠언 3:6 및 에베소서 2:8 (32,000번)
10. 로마서 3:23 (27,000번)

김진영 기자

130억 달러 자산가 하비라비 CEO “부자라고 생각 안해”



미국 기독교기업 하비 라비(Hobby Lobby) ©Flickr Creative Commons

세계 최대의 공예품 소매업체인 하비라비(Hobby Lobby) 설립자이자 CEO가 최근 신간을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하비라비 CEO 데이빗 그린(David Green)을 인터뷰했다. 그는 6백달러 가치의 스타트업 기업을 80억까지 끌어올렸다.

오랜 동업자인 빌 하이와 공동 집필한 저서는 ‘Leadership Not by the Book: 12 Unconventional Principles to Drive Incredible Results’로서 그린 회장을 이끈 12가지 핵심 아이디어와 하비라비가 받은 사명을 공유했다.

그린 회장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 “권위있는 CEO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인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클라호마 주 알투스에서 목사의 아들

로 자란 그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나 목사의 사모가 된 다른 다섯 형제처럼 목회로 그를 부르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했다고 한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 은사를 받은 줄로 안다”라며 “나는 상인이 되는 것을 즐기며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했다.

그는 사업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하기도 했다. 1980년대 중반 오클라호마에서 거의 사업을 잃을 뻔했다고 회상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수입이 계속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신용으로 재고를 구매하면서 과도하게 확장했다고 한다. 경제가 침체되자 그린 회장은 갈 곳이 없었다면서 오직 하나님뿐이었다고 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책상 아래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용서와 미래로 나아가길 방향을 간구했다”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셨다”라고 했다.

결국 하비라비의 운명은 역전됐지만 그린 회장은 하나님이 그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항상 주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전염병 초기 하비라비는 폐쇄

됐다. 대략 4천만 달러의 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고 한다.

그린 회장은 “아무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와 바바라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2021년은 가장 큰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그린 회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을 통해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하지만 또한 기도가 그것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했다.

수십 년 후 하비라비는 47개 주에서 4만3천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1천개 매장을 보유하며 성장했다.

그리고 그는 다양한 재단을 통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 1백여개 국가에서 15억부 이상의 복음서적 배포를 도왔다. 여기에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성경박물관(Museum of the Bible)과 같은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약 130억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한 그린 회장은 돈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며 부자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주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美 복음주의자 선거의제, 종교자유보다 물가상승에 더 관심”

애리조나기독교대학 문화연구센터 조사

다가오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기쁨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이슈가 낙태와 종교자유와 같은 문화적 이슈보다 복음주의 유권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애리조나기독교대학 문화연구센터는 최근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에 거주하는 성인 2천275명을 대상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7월 실시됐다.

선임 연구원이기도 한 문화연구센터 바나 소장은 “가장 깊은 신앙을 가진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선택의 믿음에 관계 없이 공공 정책의 개인적 영향에 더 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체를 배제하고 자기 자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혼합주의적 세계관과 영적 헌신의 쇠퇴를 반영한다”라고 했다.

이 조사는 응답자에게 국가가 직면한 문제 목록을 제공하고 “이러한 각 문제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투표를 누구에게 할지 결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응답자는 ‘많은, 약간, 많지 않음 또는 없음’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61%는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이 중간선거에서 투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 우려가 11월 8일 선거에서 ‘별로’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3%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식료품 가격과 부족’(60%) 및 ‘석유 및 휘발유 정책, 가격’이라는 두 가지 추가 경제 문제가 중간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58%)이라고 보고했다.

중간선거에서 자신의 선호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식품 가격’을 꼽은 응답자의 비율은 이 요인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문제로 보는 응답자보다 45% 많았다.

마찬가지로, 설문에 응한 성인의 16%만이 석유 및 휘발유 관련 문제를 투표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문제라고 답했다.

앞서 언급한 경제적 문제 외에도 ‘범죄, 치안 및 개인 안전’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서 중요한 요소로 분류한 유일한 다른 이슈였다. 응답자의 50%는 투표에 대한 주요 영향 요인으로 공공 안전을 꼽았고 17%는 그 반대였다.

조사 대상 중 절반 미만이 ‘낙태와 생명권’(46%), ‘공립학교 교육의 질’(42%), ‘

국가도덕과 가치변화’(38%) 및 ‘종교자유’(36%)를 중간선거에서 영향력 있는 투표 결정 요인을 언급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응답자들은 투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5가지 문제 중 종교자유를 꼽았다. 낙태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투표를 결정짓는 요인 중 세 번째로 자주 인용되는 문제다.

동시에 낙태, 국가도덕에 대한 우려, 공공육의 질, 종교자유는 거듭난 기독교인과 정치적으로 복음주의 교회에 출석하는 응답자의 투표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상위 5개 결정 요인 중 하나로 포함되지 않았다.

거듭난 기독교인 중 ‘식량 가격과 부족’,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 ‘석유와 휘발유 정책, 물가’를 투표 결정 요인 가운데 ‘많이’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기독교인들이 중간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은 문제는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이었고, ‘식량 가격과 식량 부족’, ‘석유 및 휘발유 정책과 가격’, ‘범죄, 치안 및 공공 안전’, ‘테러에 대한 보호’였다.

불신자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을 꼽았고, ‘식량가격과 부족’, ‘석유·휘발유 정책과 가격’, ‘낙태’, ‘테러에 대한 보호’ 및 ‘인종차별’을 언급했다.

강혜진 기자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正品
100% 정품



Made in U.S.A.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교지도요일(수) 오후 7:30

김기성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격려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 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진도와 영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산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교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를 삶에 활개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교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r)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1:35 수요일말씀강해 오후 7:30 (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도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교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영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교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종교개혁의 날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이고 내 길에 빛이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교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vkum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美 메릴랜드주, '제3의성' 학생 수 6배 증가



©Unsplash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최근 2년 동안 논바이너리 학생 수가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 기독교 변증가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 전염병에 학부모들이 담대히 맞서야 한다”고 했다.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메릴랜드에서 가장 큰 학군인 몽고메리 카운티의 공립학교(MCPS)에 소속된 논바이너리 학생들의 수가 지난 2019년 35명에서 지난해 239명으로 약 6배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들 중 과반수(129명)는 중학생이었고, 92명은 고등학생이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창조과학단체 앤서스인제네시스(AiG) 설립자인 켄 햄(Ken Ham) 전 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청소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질서를 거부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것은 공립학교와 미디어의 영향의 결과”라며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소름끼치도록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햄 전 회장은 “이제 트랜스젠더와 제3의 성 정체성을 갖는 것이 사회적 전염병이 되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새롭고 멋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무해한

작은 추세가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다른 존재로 믿게 하고,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 등 성적 학대로 이끌고 있다”며 “이 보고서가 학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시편 127편 3절 말씀처럼 아이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신 존재들이다. 자녀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고 돌보는 존재는 부모다. 우리는 이를 인식하고, 뒤떨린 이데올로기에 희생되고 있는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과감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교사 및 미디어를 통해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성별 광기의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자녀를 구해내고 도와야 한다. 기독교인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어떤 유행이 오고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행복은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옹서와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아디다스, '반유대주의 논란' 카니에 웨스트와 결별



카니에 웨스트의 앨범 'JESUS IS KING' 수록곡 'Closed On Sunday'의 라이브 녹음 현장. ©카니에 웨스트 공식 유튜브 화면 캡처

스포츠웨어 브랜드 아디다스가 크리스천 래퍼 카니에 웨스트(Kanye West)와의 결별을 선언하며 “반유대주의를 비롯한 모든 차별 발언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웨스트와 협업한 ‘이지(Yeezy)’ 브랜드가 파리패션위크에서 “백인의 목숨도 소중하다(White Lives Matter)”라는 로고 가 적힌 티셔츠를 선보인 뒤, 아디다스는 그와의 협업 관계 재검토에 나섰다. 며칠 후 카니에 웨스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반유대주의적 내용을 게시했고, 아디다스는 그의 상품을 판매에서 즉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아디다스는 ‘이지’를 가장 성공적인 협업이라고 평가한 바 있으며, 파트너십 해지 시 2022년 순수실이 2억 1,700만 파운드(약 3,545억원)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디다스는 25일 성명을 통해 “아디다스는 반유대주의를 비롯한 모든 차별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 카니에 웨스트의 최근 발언과 행동은 수용될 수 없고, 혐오가 가득하고, 위험하다. 또한 다양성과 포용, 상호 존중과 공정이라는 본사의 가치관에 위배된다”고 했다.

아디다스는 카니에 웨스트가 “백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티셔츠를 선보인 뒤 협업 관계 재검토에 나섰다. 이번 컬렉션이 재검토를 진행하는 이유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BBC와의 인터뷰에서 “아디다스가 카니에 웨스트의 디자인을 훔쳤다고 비난받는 상황을 조용히 해결하기 위한 반복적인 노력 끝에 파트너십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명품 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와 웨스트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도 10월 초 그와 관계를 끊었다.

영화·TV 제작사 MRC는 24일 최근 완성된 카니에 웨스트 다큐멘타리를 방영하지 않겠다고 “카니에는 음악 프로듀서이자 샘플러다. 지난 주 그는 3000년 이상 회자된 작품을 샘플링하고 리믹스했다. 바로 유대인은 사악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세상을 쥐고 흔들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거짓 작품이다. (중략) 당사 경영진 일동(유대인, 이슬람교인, 기독교인)은 카니에가 악의적이고 끔찍한 방식으로 거짓 논리를 펼쳤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릴 의무를 느낀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미 종교자유 단체들 “시진핑 연임, 재앙적 결과 초래” 한목소리



22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총서기 및 주석에 재선출 되어 3연임을 확정 지었다. ©CBS Morning 보도화면 캡처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이 확정되자, 미국 종교 자유 옹호 단체들이 재앙적 결과를 경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2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 및 주석직에 3연임을 공식화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1982년 도입한 국가주석직 10년 제한이 폐지된 지 5년도 되지 않아 현실화했으며, 그의 임기는 2027년 10월까지 보장된다.

시 주석의 중국 공산당 장악에 대해 미국의 종교 자유 단체 지도자들은 마오쩌둥 주석이 이끌던 “문화대혁명 시기로의 퇴행”이자 “소수민족 및 종교 박해를 암시하는 신호”라며 우려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독립을 지지하는 인권단체 동튀르키스탄 국민각성운동(East Turkistan National Awakening Movement, ETNAM) 회장인 살리 후다야르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위구르인들과 동튀르키스탄 국민들에게 대량학살과 고통이 극심해질 것임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시진핑 사상으로 중화민족 부흥을 추진하려는 기조가 “위구르인, 티베트인, 몽골인 등 비중국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아울러 “1949년 10월 말 동튀르키스탄을 점령한 이후 중국 정부는 항상 위구르인을 박해해 왔다”면서 “시진핑이 집권하고 중국몽과 중화민족 부흥을 이루기 전까지, 실제로 위구르인들은 대량 학살에 직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게이트스톤 연구소(Gatestone Institute)의 선임

연구원 고든 창은 CP에 “시진핑은 역사상 가장 야심찬 침략자이다. 공산당은 그에게 거의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했다”며 “그는 공산당이 사회를, 자신이 당을 절대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믿는다. 두 가지 목표를 전부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진핑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른 군사력 증강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전투에 중국 민간인을 동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실제로 그가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지만, 갈등을 향해 중국을 행진시키고 있다. 매우 암담한 미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본부를 둔 중국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Aid) 설립자인 밥 푸 목사는 CP에 보낸 성명에서 “시진핑의 전례 없는 3선 연임으로 ‘마오 주석’이라는 그의 별명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푸 목사는 “중국은 수십 년간의 권위주의에서 마오쩌둥주의의 2.0 독재 시대로 공식 진입했다. 시 주석의 무자비한 통치 방식인 ‘대투쟁’과 야심찬 세계 지배력이 1980년대 이후 중국 공산당의 포스트 마오쩌둥 의제인 경제 개혁과 개방을 대체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시진핑의 새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인권 유린과 종교 박해의 기록이 계속 악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도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한 것은 놀랄 일입니다. 그는 완전한 공산주의 독재자”라며, 중국 공산당이 미국이 가장 집중해야 할 “진정한 위협”이라고 지목했다.

김유진 기자

나이지리아 극단주의 무슬림, 기독교인 70여 명 살해

나이지리아 중부의 한 마을에서 풀라니 목동들이 70명 이상의 기독교인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리들은 정부의 보호가 부족하면 시민들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베누에주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월 18일 밤 이 지역에서 발생한 3건의 사건에서 5명의 풀라니 목동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 공격을 의심했다. 풀라니 목동들은 다음 날 베누에주 우룸 카운티 지베지 마을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베누에주 우룸 지방 정부위원회 테롬부르 카르투(Terumbur Kartyo) 의장은 “단 이틀 만에 우리 지방 정부 지역의 지베지 공동체에서 70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풀라니 민병대에 의해 살해됐다”고 말했다.

카르투 의장은 “구마 지방 정부 지역에서 지난주 목동들이 우데이와 엘레와타 마을에서 100명 이상의 기독교인에게 총을 쏘고 부상을 입혔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룸 카운티 주민인 베데 바르톨로뮤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주 지베지 마을에서 최소 56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됐다”며 “현재까지 희생자 중 36구 가량이 수습돼 영안실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 주민인 테렌스 쿠아눔(Terrence Kuanum)은 바세(Vaase), 다우두(Daudu), 트요트예브(Tyotyev), 우데이(Udei) 및 엘와타(Yelwata) 마을에 이어 지베지(Gbeji)가 공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풀라니 목동들이 주의 많은 지역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격 이후 지난주 이 지역을 방문한 베누에 주 정부 관리들은 연방정부가 폭력을 억제할 수 없다”며 “시민 방어 단체에 고성능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누에주 앤서니 이조홀(Anthony Ijohor) 장관은 “연방정부는 AK-47 소총 및 기타 정교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해 달라는 우리 자원 봉사자들의 요청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 기관이 너무 과도하게 확장됐으며,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 존 터버(John Terver)는 “10월 18일 구마 LGA 다우두(Daudu)에서는 목동들이 농장에서 일하고 있던 기독교인 필립 타베르시마 티오헨나(Philip Tavershima Tyohenna)를 공격해 살해했다”고 말했다.

제임스 오르두옌은 “엘와타주에서는 목동들이 5명의 기독교인을 살해했다. 풀라니 목동들은 10월 12일 오후 1시경 엘와타 공동체를 공격했다. 희생자 대부분은 농장에서 일하는 기독교인이었다”고 말했다.

구마 지방정부협의회 와쿠 크리스토퍼(Waku Christopher) 의원은 5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된 것을 확인했다.

그는 “풀라니 목동들이 우리 지역 사회인 엘레와타 공동체의 5명을 공격하고 살해한 것이 사실이다. 부상자 중 4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 예배 (1부) 오전 9:00, EM 예배 (2부) 오전 11:00, 환어 침년부 주일오후 1:00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후 5:30(토) 오전 6:00

OC 예배 주일예배 오전 10:00, 화-토 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후 7:30, 금요찬양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후 5:30(토) 오전 6:00

2351 W. Orangehope Ave., Fullerton, CA 92833, 19514 Perad St., Northridge, CA 91321, 818383-9887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쳐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사우스베이 지역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 217-9191 www.gpcclive.com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30, 유초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E.M 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초등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지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일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토렌스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묘미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KCM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전 6: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 지역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환어침년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영아찬양예배 오전 11:30, 영어침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일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김한오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5: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mc.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정보기도 오전 9:0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아 예배 오전 9:15, 일요일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청년예배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환어부 오후 1:00, KM대학원부 오후 2:30

오렌지카운티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은혜한인교회
 행복찬 교회 삼금반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목요재도예배: 오후 7시, 목요일예배: 오전 6:00(화-금), 목요일예배: 오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11:00

갯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주일예배 오전 11:0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ja@gmail.com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76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2022년 사우스 베이 목사회 총회를 바라보면서”



이상훈 목사 주미전선교회 대표

필자는 1988년 11월 5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민 입국하였다. 어느덧 34년이 흘렀다. 처음 정착한 곳이 사우스 베이였다. 미국에서 처음 출석한 교회도 이곳에 있고, 그 교회에서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그때 담임목사님이 필자의 멘토였다. 저 어른 같은 목회자가 된다면 나도 하고 싶었다. 그분의 추천으로 신학교에 갔고 지난 세월 동안 부교역자를 거쳐 타주에서 목회를 시작하여, 플러턴과 엘에이, 사우스 베이 지역 등에서 26년 동안 목회하였다.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받아 멕시코 선교지에서 2년여 사역하였다.

필자도 사우스 베이 목사회 임원과 회장을 역임하였기에 총회에 초청받고 참여하였다. 팬데믹 후 어려웠던 지난 1년, 소망교회 윤 목 목사께서 회장의 임무를 맡아 많은 수고를 하였다. 다음 1년은 토랜스 제일장로교회의 고창현 목사가 아름다운 계승을 하게 된다.

필자는 이번 총회에 참여하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그동안 여러 교회가 생겨났다가 사라진 교회들도 많았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도 기억났다. 이미 천국에 입성하신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생각났다. 필자의 젊은 사역자 시절 격려하고, 같이 어울리게 해주시고 생신 때마다 초대해 주셨던 목사님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마치 당신의 손자가 태어난 것처럼 기뻐하시며 선물 꾸러미와 금일봉을 들고 집을 방문해 주셨던 분들, 교회 행사 때 서로 초청하면서 이웃 교회들의 경사를 같이 기뻐 주셨던 그 선배 목사님들의 자리에 이제 다음 세대의 젊은 목회자들이 앉아 있었다.

필자는 사우스 베이 지역 목사회 모임을 사랑한다. 그 관계가 참 좋은 편이다. 목회 관계로 여러 지역을 다녔고, 많은 모임을 경험하면서 늘 가졌던 생각은 사우스 베이 목사회 목사님들의 화목한 관계가 돋보였다는 점이다.

교회의 애경사에 대부분 목사회에 참여하는 목사들은 함께 하였다. 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나 원로 장로님의 장례식에도 같이 할 때가 많았고, 목사님의 자녀들

결혼식에도 축가를 부르며 같이 하였던 기억이 삼삼하다. 교회의 행사는 물론 지역 교회 목사들이 순서를 같이 나누면서 정말 화목한 관계를 지금까지 나누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도 새롭게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들이 친교 시간에 같은 식탁에 앉아 교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 교회의 전임 목사님들이 저런 모습으로 서로 교제하시던 모습을 떠올리며 필자 혼자 감회의 미소를 띠었다. 필자가 선교사 파송을 받아 26년 목회를 마감하고 선교사로 떠나갈 때도 같이 하였다. 선교지에 후원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함께 나누어 주었다. 필자가 복귀해서도 교회마다 예배 시간에 초청하여 선교 보고와 말씀을 나누게 배려해 주었다. 이런 지역 교회들 연합의 모습이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목사회의 모든 교회가 연합으로 행사와 예배 그리고 선교 사역까지 함께 한 경우들도 많았다.

필자는 지금까지 오면서 목사들의 다툼이나 갈등의 모습을 본 일이 없다. 서로 격려하는 모습들, 지난 팬데믹 기간 안타깝게도 한 이웃 교회의 목사님이 코로나로 소천하였다. 젊은 나이였기에, 그리고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모두 슬픔과 애석함 속에서 장례를 참여하였고, 그분 빈자리의 허전함을 여전히 아쉬워하고 있다.

이번 총회 때 단비가 내렸다. 엘에이에서는 비 소식이 늘 경사 같은 느낌이 든다. 좋은 날, 새 회장이 세워지고 앞으로 내년 한 해 동안도 사우스 베이 지역의 목사들을 중심으로 교회들은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을 굳건히 수행하면서 나갈 것이라 믿는다. 저들을 위해 더욱 간절한 기도로 사랑의 빛을 갠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베니스에서 대부업과 무역업을 하던 안토니오(Antonio)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바사니오(Bassanio)로부터 중요한 부탁을 받습니다. 그 부탁은 자신이 벨몬트(Belmont)에서 사는 부유한 상속녀인 포셔에게 구혼을 하기위해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받지만 안토니오는 당장 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의 무역선을 담보로 하여 유대인인 대부업자인 샤일록(Shylock)에게 돈을 빌려려 찾아 갑니다.

사실 안토니오와 샤일록은 앙숙이었습니다. 고리 대금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유대인 샤일록은 안토니오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잔인한 구두쇠였던 샤일록을 안토니오가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게다가 안토니오는 자신의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도 받지 않아서 이자를 주 수입원으로 살았던 샤일록은 안토니오가 자신의 사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샤일록은 자신의 사업의 경쟁사대인 안토니오의 보증으로 자기 돈을 바사니오에게 빌려 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베어 달라는 계약을 합니다. 이에 안토니오는 자신의 상선이 곧 도착할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기꺼이 계약을 써 줍니다.

친구 안토니오의 도움으로 바사니오는 구혼에 성공하였습니다. 바사니오와 포셔(Portia)두 사람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때 포셔가 바사니오에게 결혼반지를 주면서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혼반지를 빼지도 말고 아무에게도 빌려주지 말라고 다짐과 약속을 받습니다.

한편 비정한 아버지에게 대하여 실망한 샤일록의 딸 제시카는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서 아버지의 하인이었던 사람과 사랑의 도끼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샤일록은 딸을 죽일 듯이 저주를 하며 화를 사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돈을 빌린 안토니오의 상선이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토니오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작정합니다. 샤일록은 안토니오가 계약을 위반하면 무조건 살 1파운드를 베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습니다.

안토니오 상선의 침몰 소식을 들은 바사니오는 빨리 돌아와 안토니오를 돕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렸는데 판사는 저명한 벨라리오 박사의 대리인 발타자르(Balthazar) 박사였습니다. 사실 발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타자르 박사는 바사니오의 아내 포셔(Portia)가 남장을 하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발타자르 박사는 법정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곤경에 처한 안토니오와 바사니오를 도우려 급히 베니스에 왔습니다.

남장을 하고 재판관 발타자르 행세를 하는 포셔는 안토니오에게 자비를 베풀어 돈으로 해결할 것을 샤일록에게 제안합니다. 바사니오는 자기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한 안토니오를 위해 빌린 돈의 3배를 갚거나 원한다면 더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샤일록은 냉정하게 계약대로 하자며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요구합니다. 꼼짝없이 안토니오의 살을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칼을 갈던 샤일록은 안토니오의 살을 베려 합니다. 그때 재판관이 계약서를 보더니 계약서에는 오직 살만 적혀있으니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당황한 샤일록이 바사니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자 재판관은 베니스의 법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샤일록이 어떻게 피를 흘리지 않고 살만 도려 낼 수 있냐고 묻자 재판관은 그것은 본인의 역량이라며 살 1파운드만 떼 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베니스의 국민을 해하려 한다면 그 외부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를 사형에 처한다고 선언합니다.

계약으로 베니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이방인은 벌을 받는다는 법을 들은 샤일록은 싸울 의지를 상실합니다. 베니스 법은 샤일록 재산의 절반은 국가에 헌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안토니오에게 피해 보상으로 주게 했습니다. 이때 안토니오는 자신이 피해보상금을 샤일록의 딸을 위해 결혼자금으로 주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니다. 샤일록은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법정을 떠납니다.

결국 샤일록은 안토니오 몸에 칼을 대지 못했습니다. 젊은 재판관은 법정에서 기립 박수를 받습니다. 재

판이 끝나고 바사니오는 재판관에게 감사표시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재판관은 바사니오의 반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포셔가 준 결혼반지였습니다. 바사니오는 아내와의 약속을 설명하며 난색을 표하지만 재판관이 결과를 번복하겠다고 겁박을 하자 할 수없이 반지를 줍니다.

그렇게 재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바사니오에게 아내 포셔는 반지를 잃어버린 책임을 추궁합니다. 궁지에 몰린 바사니오는 상황을 설명하고 안토니오는 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당황하자 포셔가 자신이 갠 반지를 빼서 바사니오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장을 하고 법정에서 재판관 노릇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포셔가 안토니오를 구하기 위해 원래 재판을 맡은 자신의 삼촌인 00박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황을 설명하고 스스로 남장을 하고 재판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바사니오와 안토니오는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는데, 좋은 소식을 함께 듣습니다. 그 것은 침몰된 줄 알았던 안토니오의 상선이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 모두 행복하게 파안대소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상은 셰익스피어 5대 희극 중 하나인 ‘베니스의 상인’ 줄거리입니다. 16세기 말에 쓰인 이 작품은 그 시대 문화를 보여줍니다. 첫째 지독한 반 유대인 정서입니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을 지나치게 악하게 그립니다. 유대인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작품은 과장되게 악평합니다.

둘째 당시 베니스의 법률과 준법 의식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국제 무역도시 베니스는 준법정신으로 유명합니다. 오늘날 인권과 민주라는 이름으로 불법의 자행을 보며 베니스의 성숙한 문화가 부럽습니다.

셋째 근사한 사랑과 우정입니다. 안토니오와 바사니오 그리고 포셔가 보여준 사랑과 우정은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쉽게 배신하고 쉽게 외면하는 이 시대에 목직인 돌직구가 됩니다. 넷째 전도입니다. 안토니오는 샤일록을 용서하면서 기독교인이 될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 샤일록의 딸 제시카에게 몰수한 샤일록의 재산을 줍니다. 이런 모습이 기독교의 부흥을 꽃피운 유럽 사회의 바탕이었습니다.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원리, 목회학(M.Div), 상담학박사, 석사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7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출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Midwestern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한 징계

사도행전 5:1~14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는 초자연적 이적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복음의 위력이 입증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던 중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불행한 사건은 질적 신앙의 순결성을 중요시 하시는 주님의 의지와 신적 권위를 나타내심으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믿음이 순수하고 행위가 정직하며 영적가치 제일주의 신앙으로 성숙되어야 함을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1. 요즈음 교회들은 숫자 늘리기에 집착하여 질적 신앙지도를 등한시 하는 경향이 많다고들 우려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징계가 사라져 버렸고 신도들이 어떤 생활로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도 하니 않고 방치함으로 그 심령들이 온갖 죄악의 홍수에 휩쓸려 지옥으로 떠밀려 가는데도 교회만 잘 나오고 헌금만 잘해주면 최고요, 일등교인으로 우대한다는 비판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이같은 실상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실 것인지 우리 모두가 양심으로 반성하며 교회의 정체성(正體性) 회복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전 미국 신문에 일리노이주에서 기사 한 분이 손님이 택시 안에 두고 내린 미화 20,000불을 경찰서에 맡기며 임자를 찾아 돌려주라 했을 때 경찰과 기자들이 감탄하며 이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게 해야겠다고 했을 때 택시기사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다소 겸연쩍고 당황한듯 저야말로 당연히 가야할 일을 한것뿐인데 이런일이 신문 기사거리가 되어야하는 현실사회, 정직은 간곳없고 양심마저 실종된채 죄악이 만연해가는 이 세상이 한심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느 사회보다도 훨씬 더 진솔하고 정직하게 신앙 인격적 수양과 가장 양심적인 생활신앙으로 본(本)을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징계를 멀리하며 영적권위가 실추되면서 교인들의 심성(心性)은 죄의식(罪意識)의 불감증이 만연되어 교회와 사회가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니가 어느새 교회의 본질적 기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유류상통의 사랑을 나누는가 하면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행4:31~33)"

구브로 출신의 요셉(바나바)은 밭을 팔아 사도들께 드림으로 예루살렘 교회 영적 부흥의 기폭제가 된 사실은 성령의 감동에 따른 순수한 믿음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하고파서 땅을 팔았으나 그 과정에서 돈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땅 값 절반을 감추고 절반을 사도들께

드렸을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헌금작정이 사단이 속물근성을 자극하며 미혹한 결과 끝내 써보지도 못할 절반의 돈을 감추고 하나님께 거짓말 한 죄로 부부가 공멸(攻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시종일관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순수한 믿음으로 행동했으나 아나니아 내외는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성령으로 시작된 헌금작정이 육신적 물욕(物慾)에 이성을 잃고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즉사했던 것입니다.

3. 하나님을 속이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외에게 죽음을 선포한 베드로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이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즉시 그들의 생명을 거두신 사실로 확증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불같은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부흥 단계에서 아나니아 부부가 당한 무서운 징벌은 소름끼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이 사건을 목격한 자들은 물론 듣는 사람들까지 크게 두려워하더라도 했으니 징벌의 목적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초기부터 진리정통하고 성령충만하여 믿음의 순수성으로 성경해야하고 영적가치 절대주의 신앙으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속되게 하시는 뜻으로 깨달아서 우리 모두 각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등 사회 구성구석이 썩어가는 악취가 코를 찌른다해도 교회가 진리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빛과 소금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만 하면 그것은 교회

들로 인하여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대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역자들과 기도원 원장들이 먼저 회개하고 죄악에 찌들어 멸망으로 치닫는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심성을 본받아 정직하고 진실하며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보다 힘있게 쓰임받으며 세계를 향한 영적 부흥의 불을 지킵시다.

본문 12~14절에 아나니아 부부의 죄에 대한 무서운 징벌이 있은후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회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하신 것 처럼 불의와 죄악이 교회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권면과 징계를 과감히 실행하여 거룩한 교회로 부흥성장 하면서 지역복음화와 농어촌교회 재건과 세계선교에 주력할 때 주께서 어여뻐 보시고 성령께서 크게 도우실 것입니다. 교회부흥은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의 말씀을 기대하며 베드로전서 1장15절에"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16~17절에"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하심을 명심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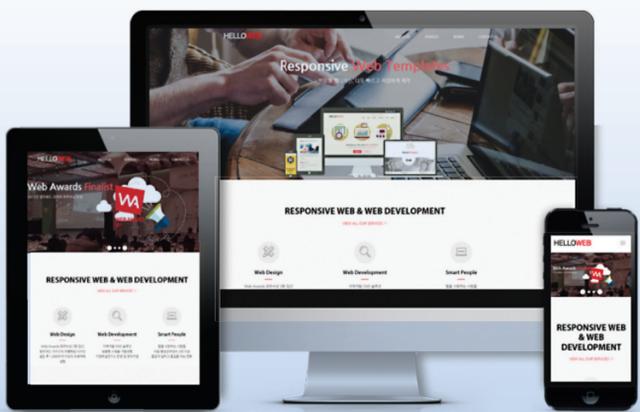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교회 웹사이트 제작 \$300

개척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님들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드립니다.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PC, 태블릿, 모바일 등 기기에 맞게 디스플레이 되는 웹사이트)

제작비	\$300 +
기본사항	Front Page + 5pages (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야함) 소개/비전/사역/설교 / 게시판 / 갤러리 / 교회소식 등
추가사항	1Page 초과시 \$50 추가 한,영 페이지 제작시 \$100 추가(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야함) 소개/비전/사역/설교 / 게시판 / 갤러리 / 교회소식 등
관리비	\$20/월(호스팅) - Cpanel, SSL, Mail \$30/월(관리비) - 선택가능

웹사이트는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Cpanel 및 Admin 정보 제공함 (관리내역: 비 정기적인 웹사이트 컨텐츠 수정 및 Update) 정기적인 유지관리 요청시 별도 협의

계약 외 서비스

월 관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웹사이트 수정은 유료임

Text 수정 : \$10 +
이미지 작업: \$20 +
기타 서비스는 내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강준민 칼럼

작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작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큰 기회를 기다리느라 작은 기회들을 수없이 흘려보냅니다. 왜 작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일까요? 어떻게 작은 기회를 큰 기회로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작은 기회 속에 담긴 비밀을 깨닫고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작은 기회 속에 큰 기회를 감추어 두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의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점점 자라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됩니다(마 13:31-32). 지혜란 작은 기회 속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을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위대한 것은 작게 시작된다는 원리를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

한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울창한 숲도 작은 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어른이 됩니다. 거대한 탑도 작은 벽돌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높은 건물도 한 사람의 작은 생각 속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하게 된 기회를 추적해 보면 독후감을 기고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말씀 묵상 칼럼을 크리스천 신문에 10번 기고한 것으로 발전됩니다. 그 신문 칼럼이 저의 첫 번째 책인 《묵상과 영적 성숙》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일상의 삶 속에 작은 기회를 감추어 두십니다. 큰 기회는 눈에 쉽게 띄지만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작은 기회는 눈에 쉽게 띄지 않지만 날마다의 삶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작은 기회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 시작한 일은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는 것입니다. 기회의 크기를 따지지 말고 모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그다음 역사가 전개됩니다. 우리 일상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울 기회, 훈련받을 기회, 사랑할 기회, 섬길 기회, 베풀 기회, 그리고 헌신할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어진 작은 기회를 찾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은 낯선 만남 속에 작은 기회를 감추어 두십니다. 일상의 삶 속에 찾아온 낯선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통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낯선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모든 만남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을 만날 때 좋은 만남과 나쁜 만남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만남 속에 좋은 기회를 담아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을 성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중에 술 맡은 관원이 나중에 요셉을 바로 앞에 서도록 도와줍니다. 요셉은 낯선 만남을 잘 섬기는 중에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왕을 만나 국무총리가 되어 가족들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창 50:20). 저를 복되게 만든

것은 좋은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후에 좋은 아내, 탁월한 멘토, 훌륭한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만남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좋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작은 기회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 4:2)고 권면합니다. 기도하면 깨어 있게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영의 눈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기회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 담긴 기회를 보게 됩니다. 장애물 속에 담긴 기회를 보게 됩니다. 역경 속에 담긴 기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고난으로 변장 되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싫어하면 고난 속에 담긴 변장 된 기회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사 55:9).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일상 속에 담아두신 작은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그 기회를 큰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구봉주 칼럼

신앙 클래식 2 - 위그노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오늘은 신앙의 클래식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그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위그노는 프랑스 개신교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16세기에서 18세기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원래, '위그노'라는 말은 '동맹' 또는 '하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동지들'이라는 뜻의 독일어 '아이트게노센'에서 나온 말로써, 사람들이 이 단어를 축약해 '아이그노트'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위그노'가 된 것입니다.

16세기에 프랑스 개신교회는 2000여개가 세워졌고, 개신교 교인은 프랑스 인구의

11%,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교는 개신교를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시의 창고에서 예배중이던 개신교도들을 공격하여 74명을 죽이고 100여명이 부상을 당한, 바시의 학살 사건이 있었고, 앙리 4세가 '낭트칙령'을 선포하여, 개신교도들과 37년간 전쟁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셋째는 파리에서 3000여 명이 죽고, 전국적으로 3만 명 이상의 개신교도들이 학살당한 '성 바돌로매 대학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18세기 말, 루이 16세가 베르사유 칙령을 선포할 때까지 위그노들은 수 백 년 간 핍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그노들은 그러한 핍박에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살해의 고통 가운데서, 자신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위그노들의 신앙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 위그노들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자 하는 인내와 믿음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위그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상징물은 '망치'와 '모루'입니다. 망치는 위그노들이 당하는 박해를 상징하고, 대장장이가 벌겋게 달군 쇠를 내리칠 때, 받침대로 쓰이는 쇠로 만든 '모루'는 그들이 놓인 힘들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상징합니다. 위그노들은 망치와 모루를

그러가며, "그들이 우리를 망치로 두들기면서 즐거워할수록, 그들의 망치는 더 많이 많아 없어질 것이다"라는 글을 새겼 습니다. 망치로 아무리 두들겨도 우리의 확고한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 강한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그노들의 또 한 가지 신앙의 특징은 강한 저항 정신이었습니다. 프랑스 위그노의 상징적인 인물은 '마리 뒤랑'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개신교 신앙으로 교육을 받으며 위그노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1730년 7월 19살 나이에 신앙의 이유로 38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동료들을 돌보며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어느 날, 마리 뒤랑은 감옥 부지 안에 있는 우물을 길어 올리는 구멍 주위에 글을 새겼습니다. '저항 하라 비진리에 저항하고,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복음을 위해 저항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글을 매 순간 바라보면서 그녀는 고통스러운 삶과 가톨릭의 회유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다시 세우고 방향하는 동료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돌에 새긴 '레지스테'는 이후 프랑스 개신교들의 영혼

에 새겨졌고, 우리가 잘 아는 레지스탕스 저항군이라는 말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위그노 신앙의 두 가지 특징은 오늘 21세기 포스트 팬데믹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영적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도 인내하며, 여전히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하는 도전과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진리와 세상적인 가치와 문화 속에서도 끝까지 저항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 없이 지켜 나갈 것인가?"하는 도전입니다. 위그노들이 팬데믹을 겪었다면, 그들은 끝까지 모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핍박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칠 것을 대비해, 이동식 강대상과 이동식 분리형 성찬대를 준비하여, 위협적인 상황이 와도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예배 드리다가 죽기를 각오하였을 것입니다. 위그노들이 만약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해 옹호하는 세상을 맞이했다면, 그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에 뛰어들어 성경적인 진리를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위그노 정신의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자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새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진유철 칼럼

세뇌와 참 믿음의 차이는 순종이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영적으로 무서운 미혹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는 생각과 마음을 통해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벧전 5:8-9) 우리는 피하여 숨는 자가 아니라 마

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대적이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엡6:12)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쟁이인 마귀는 인간질의 천재라서 사람과 싸우게 만듭니다. 군인에게 좋은 적을 향해 쏘라고 주어진 것인데, 여친이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상관이나 동료가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총을 쏘면 망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적으로 여겨 시기 질투하며 싸우거나 미움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뒤에서 마귀가 웃고 춤출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신앙이 성장하여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사람 간에 오해 질투 시기 갈등 등 문제는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적으로 놓지 않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여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용납이 안 되는 원수라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울지언정 비방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합력하여 선이 되고, 높여 주시는 역전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분명한 진리는 원수마귀를 이기는 힘은 내게 있지 않고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며 감부였던 욥도 원수마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한 순간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열 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몸은 심각하게 병들고, 아내와 친구들이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이기겠다고 이겨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길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

는데도 매번 패배하는 것 같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에 대해 계속 듣다보니까 세뇌 된 믿음은 아닌지, 교리를 공부하므로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실상 교리를 믿는 믿음은 아닌지를 말입니다. 이런 세뇌와 교리를 믿는 것으로는 마귀를 이기는 권능을 누릴 수 없고,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에 영접한 참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지금 내게 주어진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의 내공을 키워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단기선교를 다녀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효도 잔치와 같은 수고와 희생이 담긴 순종을 통해 참된 믿음의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불순종과 반역을 미화하는 세상에서 순종은 손해 보는 바보짓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참 믿음의 유일한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칼럼

동네 작은 교회들이 함께 꾸는 꿈



박 동 식 교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어느 교회 다니세요?’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큰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교회 이름을 언급하지만,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 많은 이들은 교회 이름 언급하는 것을 상당히 꺼린다. 머뭇머뭇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뗀다. 왜 그럴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동네 작은 교회”라는 교회가 진짜로 있는 건 아닐까. 작은 교회 성도들도 당당히 교회 이름을 밝히면 좋겠다. 매주 월요일 저녁 몇몇 동네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말씀 나눔과 기도 모임’을 한다. 먼저 만나 식사하고 멤버 중 한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모임을 한다. 함께 일상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말씀 나눔은 구체적이며 기도는 간절하다. 거의 토해놓는다. 하나님 한 분밖에 도울 분이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니 그럴 것이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주시기를 소망한다. 언젠가 개척교회 목회를 하는 동기 목사를 만난 적이 있었다.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잊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라. 어른이 되어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그 눈물을 보니 당황스럽고 안쓰러웠다. 사연을

들어보니,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교인들을 돌보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마음이 바뀌지는커녕 어떤 분들은 오히려 상처 되는 말을 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프고 아프니까 운다. 어느 눈물인들 기쁨의 눈물이 아닌 이상, 힘들지 않은 눈물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목회자의 눈물은 더 힘든 것 같다. 그러니 성도들은 주의 종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NIV는 ‘알고’를 ‘respect/존중하라’로 번역하고 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살전 5:12-13a) 말씀하신다.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길 때, 그 목사님의 목회와 그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겠는가. 필자는 교회 사역을 하지 않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비전을 공유한다. 교회를 어떻게 살리는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밥만 같이 먹으면 되는가. 신세 한탄만 하면 되는가. 아니다. 작은 것이라도 함께 비전을 나누어야 한다. 함께 비전을 나누는 데서 함께 비전을 볼 수 있다. 거기서 부흥은 시작할 것이다. ‘목사님들 교회에 일 년 안에 30명씩 보내 달라고 기도하자’ 했다.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고 계시지만 오로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자’ 했다. 30명만 되면 자립은 할 수 있다고 하니, 그 30명 놓고 기도해야 한다. 그 비전을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나누면 한다. 성도들이 자기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내가 지을 성전도 커야 합니

다.”(새번역, 대하 2:5). “크다”가 꼭 사이즈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위대하다”를 의미할 수도 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니 내가 지을 성전도 위대해야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대하게 이루어보자. 그것은 목회자 자신의 존재를 건 목회를 성도들이 보고 참여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진 목회자가 함께 모여야 한다. 동네 작은 교회들이 홀로 고립되어 고독하게 버틸 것이 아니라 이런 비전을 품고 서로 연합했으면 한다. 서 넷 교회가 모여 연합 행사를 한다면 서로 힘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준 행사가 미주지역에서 있었다. ‘예배 회복과 선교적 삶으로의 결단’이라는 주제로 열렸던(Sep 26-28, 2022) <위브릿지 컨퍼런스(We Bridge Conference). 이 컨퍼런스는, 재정적으로 자립한 지역 교회들이 현재 외부의 재정 후원 없이 30명 미만으로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2023년 1월부터 3년간 매월 500달러씩 후원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감사한 것은, 함께 모임을 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여기에 선정되었고 또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시고 가슴 뛰는 비전도 나누어 주셨다. 이런 운동의 취지와 마음이 소중한 것 같다. 자립한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는 취지에 참여했다는 것이, 교회 연합에 중요한 시발점으로 작동할 것이다. 다윗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 군대와 싸울 때 요압과 아비새를 보낸다. 요압은 아람 군대를 맡고, 아비새는 암몬 군대를 맡지만, 서로 협력하며 요압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암몬 군대가 나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노를 돕겠다.’ 요압이 아람 사람과 싸우러 나가니 그들이 도망

간다. 아람 군대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암몬 군대도 도망간다(삼하 10:11-14). 협력 전투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요압과 아비새의 연합은 목숨을 건 연합이지만, 암몬과 아람의 연합은 비즈니스적 연합일 수 있다. 손익계산에 따른 연합은 느슨한 연합이며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 교회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 영적 전투에서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동네 작은 교회가 요압과 아비새처럼 서로 협력하여, A 교회가 힘들 때 B 교회가 돕고, B 교회가 어려울 때 A 교회가 함께 해야 한다. 그것이 협력이다. 그러기 위해 동네 작은 교회에 일꾼이 있기를 소망한다. 동네 작은 교회도 추수할 것이 많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눅 10:2)라고 기도로 동참하자. 언젠가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 바티칸 박물관과 밀라노 대성당을 본 적이 있다. 건물 자체만 보더라도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며, 내부 장식만 보더라도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였다(점잖게 표현했으니 감정을 실어서 읽어도 무방하다). 지금도 여전히 성당의 역할을 하겠지만, 관광지가 되어버린 듯했다. 이런 곳이 어디 한 둘이겠는가. 그 끝이 어떨지 눈에 보이는 듯하지 않은가. 늦기 전에 깨닫고 돌아서자. 교회들이 관광객들의 감탄사에 취해 건물만을 보존할 것이 아니라, 또한 과거 역사 속 부흥만을 추억 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현실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소망한다.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꿈으로 위대해지기를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동네 작은 교회들이 모여 함께 꿈을 꾸자. 그 시작은 서두에 던졌던 질문에 당당히 답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혜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기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르크의 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위브릿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scan me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inexcollisioncenter@gmail.com

30년간 사고방식만 변하지 않으면 평생 믿어주세요!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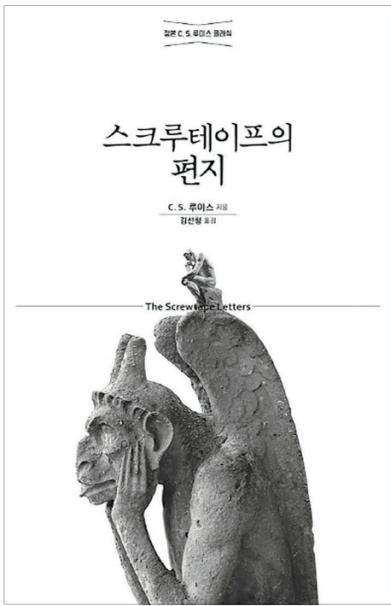
업무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닭, 오뎅,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이성구의 기독교 문학을 만나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우리가 왜 하나님 멀리한 채, 다른 것 탐하는지 알려주는 '편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 S. 루이스 | 김성형 역
홍성사 | 208쪽

경험 많고 노회한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 충고하는
서른한 통의 편지

이 타인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자 하는 마음으로, 신을 믿고 갈망하면서 나의 모습에 또 다른 타인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의 연쇄 작용'으로, 기독교는 특수성(깊이)과 대중성(넓이)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C. 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이 책은 1961년 출간되었지만, 서문에 보면 1941년 7월 5일에 쓰여졌습니다. 80년 가까이 된 겁니다.

책은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어린 악마인 웜우드에게 전하는 31통의 편지입니다. 작가는 유명한 판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를 쓴 문학가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완벽한 기독교 문학'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갖는 깊이를 문학이 주는 넓이에 아주 최적화되어 담아내었습니다.

31통의 편지에서는 단 한 줄도 '신을 믿으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쓰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악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해야 신과 멀어질 수 있는지를 즐기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역설(逆說)이 신을 더 믿어야 하는 당위성을 주고, 신을 제대로 믿으라는 역설(力說)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길지 않습니다. 보급판으로 나온 책이나 양장으로 나온 책이나 200쪽이 간신히 넘는데다, 31개의 장도 짧아서 아무리 책을 느리게 읽는 사람도 하루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두 달 동안 읽었습니다.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어느 심리학서보다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고, 어느 신학서보다 교리를 확실하게 전하고 있으며, 어느 문학서보다 문장의 유려함이 높기 때문입니다.

책을 빨리 읽는 걸 좋아하는 저인지라 아는 내용은 빨리 넘어가는 편인데, 이 책은 어느 때는 한 통의 편지를 읽고, 또 어느 때는 한 문장을 읽고 책을 덮어서는 가만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글들로 가득 차 있고, 사람의 민낯 세상의 속성을 기가 막히게 잘 짚어내고 진단하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상평을 쓰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이 책이 담는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걸 미리 밝힙니다.

줄 친 문장만 따로 엮어도 작은 소책자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길지 않은 책에서 말입니다. 또 이 책은 작가가 문학가답게 여러 문학서들을 인용하고 있어, 책의 확장성 면에서도 좋습니다.

C. S. 루이스 여기에 몇 문장을 옮겨 보겠습니다. (인용한 글의 페이지는 보급판이고 여기에 나오는 '원수'는 하나님이고, '환자'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

록 바리케이드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일 게 없다. 원수는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 바라지만 우리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46쪽)."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장 매달려 있도록 조처하는 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이야말로 제 십자가라고 믿게 만들거라(47쪽)."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환자를 다 잡는 거나 마찬가지지. 세속적 명분이야 어떤 걸 추구하든지 상관없다. 집회, 팸플릿, 강령, 운동, 대의명분, 개혁운동 따위를 기도나 성례나 사랑보다 중요시하는 인간은 우리 밥이나 다름없어. '종교적'이 되면 될수록(이런 조건에 사는) 더 그렇지(56-57쪽)."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쓸쩍 밀어 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 게야. 혹시라도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 잡으려 들거든, 이번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라구(95쪽)."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부추길 만한 가치가 있지. 인간들은 노상 제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천국에서 듣든 지옥에서 듣든 우습기 짝이 없는 소리다. 인간이 그런 우스운 소리 계속 떠들게 하는 게 우리 일이야(140쪽)."

읽을수록 놀랍습니다. 무엇보다 심대한 교

리와 진리를 서간문에 담으니, 전달력이 크고 충격도 큼니다. 우리가 왜 신을 멀리하고, 신 외에 것을 탐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은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자에게 바라기는 이 책의 분량이 짧다고, 또는 어렵다고(교리를 다루고 있는데다 한 문장에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고 곱씹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31통의 편지로 되어 있으니 하루 한 장씩, 한 달에 걸쳐 읽어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일 년에 12번 읽는다면,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출판사에게 바라기는, 이 책은 장마마 마지막 부분에 묵상할 코너를 만들어 보강하거나, 쪽성경처럼 장을 나눠서 출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책은 쓰기는 80년, 책으로 나오기는 60년이라는 사실을 볼 때 더 놀라게 됩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놀라운 마음과 동시에,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만한 기독교 문학서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아쉬움은 이 책에 대한 가치를 되새기며 다시 읽기 위해 책장을 펼치면서 달래게 됩니다.

처음에 알려드렸듯, 저는 이 책을 완전하게 소개하지 않았습니

다. 미진한 감상평은 여러분이 읽어서 채우시길 바랍니다.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 하시니라



For we are God's handiwork,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40년 전통의 성지순례 전문여행사
let's go 이스라엘 성지순례 \$2,800 (전일정 항공포함)
예루살렘 7박8일
2월 20일 출발
베들레헴과 감람산과 갈릴리와 사해
다윗의 피신처, 유대광야와 맛사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문의 : (213) 653-6489, (213) 819-5132
주관: 세기여행사, 파이오니아 여행사
*상기 상품의 일정과 비용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 청빙공고
피츠버그 한인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 교단(PCNA)에 속한 교회로, 이 지역의 유수 대학들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민들과 이 지역을 찾는 많은 학생들, 청년들을 전도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시고 복음중심적인 목회에 열정이 있으신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교회 소개 및 배경 설명: 아래 링크 참조
https://tinyurl.com/5e7mz3pn
자격
• 목사안수를 받으시고 PCNA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는 분
• 담임목사나 부교역자로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 서류
• 이력서; 신앙고백서; 목회 비전; 가족 소개서
•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와 목사 안수 증명서 사본 (원본은 청빙 수락 시에 요청합니다)
• 설교 2회분 (link): 영어설교가 가능하신 분은 1회분 추가
• 추천인 3인의 전화번호와 email 주소 (목회자 2인 포함)
제출 방법
• email to: s
•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제출바람
제출 마감
• 청빙이 완료될 때까지 (심사는 접수되는대로 시작함)
피츠버그 한인 장로교회
Pittsburgh Korean Presbyterian Church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시리즈 <글리치> (2)

넷플릭스, 미국·유럽 겨냥 한국서 기독교 비판 콘텐츠 제작?

한국적 정황 맞지 않는 넷플릭스 반기독교 콘텐츠 왜?
넷플릭스, 동아시아·동남아 일부 국가들만 성장 여력
한국 콘텐츠, 서구권도 어필 요소들 갖추게 집중 투자
교계, 기독교 문화 끼친 선한 영향력 콘텐츠 만들어야

◆한국 넷플릭스의 반기독교화: 사세 확장을 위한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반기독교화

최근 <오징어 게임>, <수리남>, 그리고 <글리치> 같은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에서 유독 기독교 신앙 및 기독교 계열 이단종파에 대한 비하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풍자가 성행하는 데는 넷플릭스의 경영상 계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것처럼, 넷플릭스는 현재 기업 성장에 멈춰 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출 성장과 직결되는 가입자 수는 올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고, 디즈니+, 애플TV+와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이미 OTT 서비스 시장이 포화 상태에 도달해서, 넷플릭스가 가입자를 더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은 경제력 부진으로, 중동 지역은 종교적·정서적 괴리감으로 인해 시장 개척이 쉽지 않다.

그나마 넷플릭스가 사세 확장을 노릴 수 있는 지역은 초고속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경제 성장 여력이 있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잠재 수요가 많은 중국은 미국에 본거지를 둔 OTT 서비스 업체들에게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결국 넷플릭스가 현재 적극적으로 사세 확장을 노릴 수 있는 지역은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각국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서구권에서의 사업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던 2016년을 기점으로, 동아시아 지역 콘텐츠 발굴 및 제작에 상당한 힘을 들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6년 <굿모닝 콜>을 시작으로 넷플릭스와 현지 방송국이 합작한 드라마 혹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계속 제작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9년 <킹덤>을 시작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계속 제작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한국의 오리지널 드라마는 최근 넷플릭스의 사업 규모 유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2000년대부터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두각을 드러낸 한류 문화의 영향력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한국의 드라마, 영화, 그리고 K팝 등이 이 지역에서 크게 선호되어 온 덕분에,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또한 비교적 손쉽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201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서구권에서도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세계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런 추세는 <킹덤>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고, 작년 공개된 <오징어 게임>에서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이에 넷플릭스 본사는 최근 제작되는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들이 서구권 시청자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에 반종교, 반기독교 메시지를 적극 담아내고 있다.

◆한국 넷플릭스의 실책: 한국의 근현대 역사 속에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문화의 위치

넷플릭스는 포스트모던 문화의 기본 이념인 다원주의를 선도적으로 표방하고 추구하는 콘텐츠 제작, 유통사이다. 당연히 배타주의 종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데,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을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인 까닭에 배타주의 종교의 전형으로 기독교 신앙을 지목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반기독교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가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표면적 원인으로서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구 기독교계의 사회적·문화적 영향력 반감을 지목할 수 있다.

하지만 심층적으로는 전통과 보편적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혁신과 일탈을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여기는 포스트모던 문화이념의 특세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서구인 관점으로 볼 때, 기독교 신앙과 문화는 서구 문화사와 정신사를 지탱하던 전통의 핵심이다. 따라서 서구인들 사이에는 삶의 혁신과 개별화를 위해 반드시 기독교 신앙과 문화를 비판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이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한 유교적 정신문화 유산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제작되는 콘텐츠 상당수는 미국과 유럽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반기독교 정서를 조장한다.

이는 최근 한국에서 제작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옥>, <수리남>, 그리고 얼마 전 공개된 <글리치>



외계인, UFO, 그리고 사이버 종교의 집단 자살이라는 자극적 소재를 중심으로 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글리치>.

>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반기독교 정서는 서구의 문화사적 정황에는 약간이나마 들어맞을 수 있겠지만, 한국의 문화사적 정황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 것을 넘어 부당하고 부적절하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문화는 한국 사회의 인권 신장과 평등, 그리고 문화 수준과 삶의 질 개선에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1800년대 초, 정조 시절부터 한국에 유입된 서학과 천주교는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고, 중인 이하 하층민들에게 평등한 공동체적 삶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1800년대 말 시작된 개신교 선교는 한국 근대화와 신식 교육, 평등, 그리고 윤리적 삶의 실천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의 자주독립 정신을 지켜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서구에서는 기독교 신앙 전통이 오래된 억압의 사상체제로 비추질 수 있지만, 우리 한국 역사에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문화는 해방, 인권, 계몽의 주된 원동력이었다.

비록 1990년대 이후 한국 기독교계가 급격한 양적 성장의 부작용 때문에 교회 내부 비리나 이단 문제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바가 많았지만, 이전까지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사회에서 짧게는 100여 년, 길게는 200여 년 넘게 한국의 근대화, 문화발전, 생활개선을 이뤄내는 데 이바지했고, 윤리적 삶을 독려하는 데 앞장서 왔다.

즉 현재 한국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에서 선보이는 반기독교 메시지는 서구 다원주의 문화정서 속에서는 수긍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의 근현대 역사 정황 가운데서는 부당하고 편향적인 측면이 많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지옥>, <수리남>, <글리치>에 선보이는 기독교 비하 및 풍자는 지극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이단 종파들의 특성을 가져와 우스꽝스럽고 기괴하게 비튼 것 외에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해당 작품의 각본가나 감독들이 우리 한국 사회의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문화에 대해 교의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글리치>의 경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신흥종교 사이언톨로지에서 주장하는 외계인 신앙까지 끌어들이며, 한층 더 서구 기준에 맞춘 반기독교 메시지를 전한다.

이는 성장이 정체된 넷플릭스의 현 사업 전략에 맞춰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반기독교 정서, 그리고 신비적이고 개별화된 종교성을 억지로 부각시키는 꼴이다.

이처럼 막대한 자본력을 자랑하는 넷플릭스의 투자를 받기 위해 우리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반기독교 메시지를 억지로 집어넣는 오리지널 콘텐츠는 앞으로 계속 제작될 것이다. 이는 곧 넷플릭스의 편향된 반기독교 정서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진적으로 증대된다는 뜻이다.

이런 잘못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계가 단순히 반기독교 콘텐츠 범람을 무력하게 지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문화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절감할 수 있게 해주는 수준 높은 콘텐츠 제작과 배급에 힘써야 하겠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한국 헤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수면 대장내시경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수면 위내시경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30** (\$100불 할인예약증 \$2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환율변동)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KIDOK SHOP

Thanksgiving Sale

www.kidokshop.com



기독교샵 바로가기

- Step 1. 핸드폰 카메라 앱 켜기
- Step 2. 좌측 QR코드 스캔

이름 특별전



면역버섯17강 2박스 구입시
1박스 더 증정



발효홍삼 2박스 구입시
1박스 더 증정



개성홍삼젤 2박스 구입시
1박스 더 증정



호모비오틴 2개
구입시 1개 더 증정



ABC콜라겐 2박스
구입시 1박스 더 증정



뼈건강 칼슘 2개
구입시 1개 더 증정



키즈텐 3박스 구입시
1박스 더 증정



파워온 2개
구입시 1개 더 증정



휴젠푸드 2개 구입시
1개 더 증정



간건강 2개 구입시
1개 더 증정



기억력 2개 구입시
1개 더 증정



이름 제품 구매시, 2가지 혜택

- 리비스타 종아리 압박밴드 무료 증정 (사이즈 랜덤 배송)
- 무료 배송

기독교샵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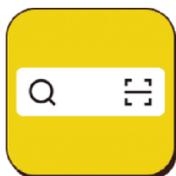
1:1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 상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카카오톡 채널 이렇게 추가하세요!



step 1.
카카오톡 실행하기



step 2-A.
카카오톡 검색창에
기독교샵 검색하기



step 2-B.
QR코드 스캔 후
QR코드 스캔하기



step 3.
기독교샵 카카오톡
채널 추가